

현행 도로표지판 문제점 분석 및 리디자인

참고자료

논문자료:

도로표지 도안 자동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시에 관한 연구 (이진아, 2006)
교통사인시스템을 위한 서체디자인 연구 (전우찬, 2006)

규정집:

도로표지판관련규정집 (2006)

서적: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원유홍, 서승연, 안그라픽스, 2004)
타이포그래피 에세이 (에릭 슈피커만, E.M. 진저, 안그라픽스, 2003)

사례조사 장소 및 일시

장소:

대구광역시의 시내이자 주요도로인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중앙대로, 국채보상로, 동덕로, 신암로

일시:

2007년 12월 1일 오후 1:30 ~ 4:40

이동수단:

자전거 및 도보

문제점 분석

한글의 태생적, 형태의 특성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긴 지명을 표기할 경우 장평이 줄어들어 판독성이 떨어짐.

또한, 한글 로마자 표기법상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길이가 길어져 한글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남.

한자 지명 병행 표기 시행 이후 도로표지판 안에 많은 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각 구성요소간의 비율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함.

관련 규정 및 도로표지판 자동 도안 프로그램이 있으나 우리나라 도로표지판 제작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일관성 있는 도로표지판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전 도로표지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음.

리디자인시 고려사항

표지판의 크기

구성요소의 정렬 및 여백 설정

표지판에 사용되는 서체의 종류, 굵기, 간격 등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글자의 길이에 따른 가독성 확보를 위한 장평 설정

서체의 아름다움

서체

한글:

서체는 현행 규정에서 지정한 산돌도로표지판M, B를 벗어나지 않게 했다.
작업환경 사정상 산돌고딕M으로 대체했다.

한글의 낱자를 놓고 봤을 때, 현재의 네모틀 모아쓰기는 획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판독에 장애가 되며,
글자들을 나열하여 문장을 이루었을 때 옆 글자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가독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는 Bold와 Medium을 함께 쓰지만
리디자인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Medium으로만 한정하여
한글 낱자 내부에 공간이 생기게 하여 평상시 및 악천후시 판독에 용이하게 해보려 했다.

그리고 현행에는 장평 조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 리디자인에서는
장평 80%를 고정으로, 공간이 좁으면 글자가 아닌 판의 크기를 조절하게 해보았다.

서체

영문:

현행 영문 지정서체는 Helvetica에 크기는 한글의 높이의 60%, 굵기는 B, M으로 상황에 따라 장평조절이 가능하게 지정되어 있으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상 철자가 많이 길어지고 한정된 판의 공간 안에 지명을 넣게 되면 장평의 축소가 불가피해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서체의 모양 또한 기본 장평이 큰 이유도 있다.

그래서 역이나 대학명, 교차로명 등의 기관에 약어를 쓰기도 하나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리디자인시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체는 장체에 평상시 및 악천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Info Book을 사용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자간을 -10으로 설정하였다. 높이는 현행대로 한글의 60%로 두었다. 그리고 가급적 약어 사용을 자제하고 한줄이 내려가더라도 원래 명칭을 쓰게 했으며 모든 표지판의 크기는 영문을 기준으로 크기가 변동되게 해보았다.

숫자도 영문서체의 적용을 받으나 한글표기부분의 숫자, 영문은 한글규정에 따른다.

서체

한자:

한자 또한 사각틀 안에 한글보다 많은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과 같은 이유로 한글의 굵기보다 한단계 아래인 산돌고딕L로 설정했다. 그대신 현행 글자 높이인 한글의 90%를 한글의 높이와 같이 100%로 설정해서 Light로 설정할때 떨어질 판독성을 보충하려 했다. 그리고 장평은 한글과 같게 80% 고정으로 설정하였다. 주로 한글 지명과 한자의 지명의 글자수가 똑같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 이후 표지판에 한자표기를 병행하기 시작했는데 한정된 판의 공간 안에 한글, 영문, 한자 세가지를 표기하다보니 판독 및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져버렸다.

규정에는 관광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쓴다고 애매하게 나와있어서 리더디자인에서는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한자표기를 배제하였다.

색상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구시내 주요도로의 표지판이 1차 정비되고
2006년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재정비 되고 있다.

규정에 도시지역에는 표지판의 색상이 청색이어야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녹색으로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정해놓았다.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도 대부분의 도로표지판을 녹색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리더디자인도 모두 녹색으로 바꾸고
관광지의 경우 갈색을 쓰는데 현행 그대로 쓰기로 했다.

크기

리디자인 작업시 기본 크기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작한 Road Guider 2.5에서 현행 규정에 맞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크기를 준수했으나

영문 표기의 가독성 및 판독성을 위해 지정된 자간 및 장평을 고정했으므로 이것에 맞추어 판의 크기를 변동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크기 및 제작보다는 도로표지판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구성요소의 가독성과 판독성을 지키고 미적으로 깔끔하게 정렬을 하기 위함이다.

구성요소 정렬

표지판내의 요소의 기준이 가장 길게 쓰여지는 영문에 맞추어져 있어서 그에 맞추어 화살표 및 기타 구성요소를 시각적으로 안정되게 정렬했다.

모든 기호요소의 크기는 그 기호가 쓰이고 있는 표지판의 한글 높이에 맞추었다.

한 기둥에 부착된 모든 표지판의 글자크기는 동등하게 했다.

정렬에 관한 내용은 리디자인 결과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리디자인 결과

편지식 3방향 예고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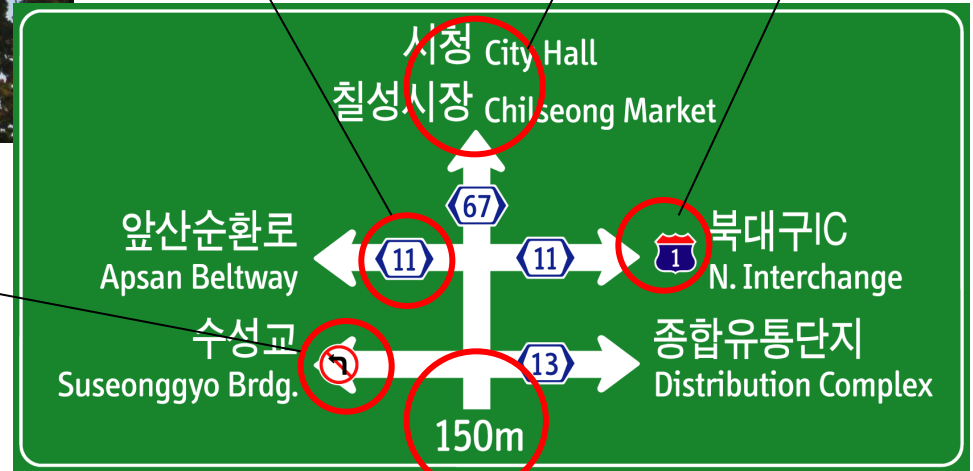
화살표가 판의 가운데에 오게 아닌
전체적인 요소의 균형에 맞게 위치 변동

화살표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글과 영문 정렬

도로번호는 화살표의 가운데에 배치

고속도로번호는 화살표의
끝의 중간에 배치하여
이 도로로 가면 고속도로가
나온다고 알 수 있도록 함

좌회전 금지표지는 화살표 축 부분에 넣어
금지 신호가 더 빨리 인식되도록 함



예고거리의 글자크기는 그 표지판의 한글 크기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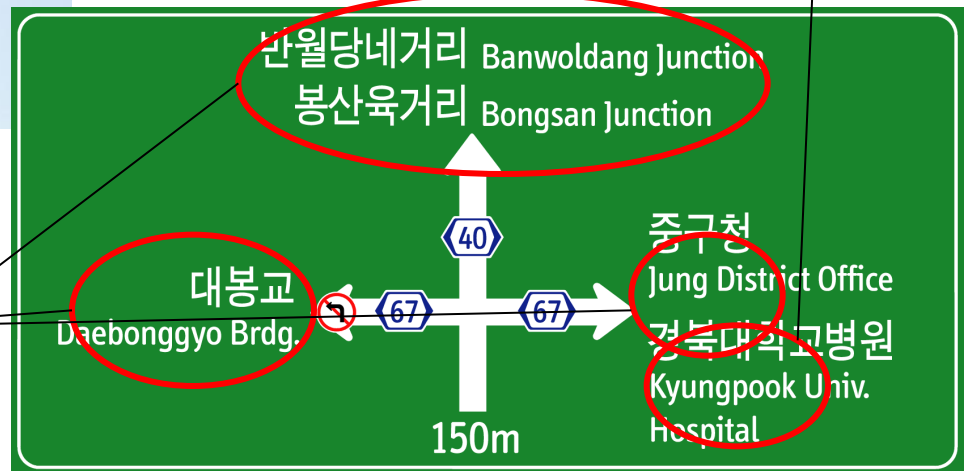
편지식 3방향 예고 표지



약칭사용을 가급적 자제
(타지방 사람들 배려)
영문표기가 길어질 경우
한줄 내려서 쓰도록 함

왼쪽방향은 오른쪽정렬, 오른쪽 방향은 왼쪽 정렬
윗쪽 방향은 한글과 영문을 일렬로 배치하여
화살표를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

목적지가 두개인 경우 화살표를 중심으로
그 두 목적지의 표기의 사이에 들어가게 배치



편지식 2방향 예고 표지



현수식 3방향 표지



픽토그램은 Road Guider에서 지정되어있는 기호로 표기 크기는 그 판에 쓰여진 한글 높이와 같음
공간이 있을 경우 한글표기의 윗쪽에 배치를 기본으로 함

기본정렬은 화살표 끝부분이나
요소가 많을 경우 조절 가능

관광지의 경우
눈에 잘 띄기 위해
해당 칸 전체에
배경으로 지정색같은
갈색으로 감
한글, 영문,
한자순서의 표기로
정했으나 공간 부족일
경우 순서 변동 가능



현수식 3방향 표지



화살표가 측면에 있을 때는 왼쪽 정렬을 하고
아래에 있을때 가운데 정렬을 한다.



현수식 3방향 표지



현수식 3방향 표지



가운데 정렬이 기본
영문의 길이만큼 판의 길이가 길어짐

표지판에 고속국도, 국도가 들어갈 경우
글자는 도로기호에 맞춤.
통일성을 위해
두 목적사이의 공간에 변동을 주지않기 위함

목적지명이 두개인 경우
세로길이가 늘어남.

요소가 많아지므로
정렬이 가로 정렬이 아닌
왼쪽정렬로 바뀜

픽토그램이 한글 위에 있어야 하나
공간이 없으면 왼쪽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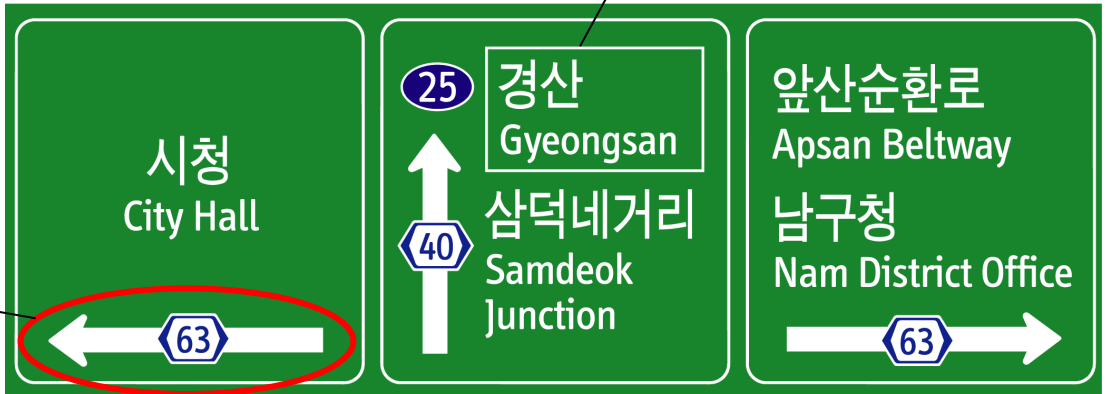


현수식 3방향 표지



가운데 정렬이 기본
영문의 길이만큼 판의 길이가 길어짐

시외 지명은 규정대로 테두리를 쳐줌



화살표의 길이를 기존보다 길게 해서
다른 요소와 조화가 되도록 했음.

현수식 3방향 표지



이정표는 영문도 함께 포함하여
영문 표기 길이만큼 변동

건들바위네거리
Geondeulbawi Junction

동인네거리
Dong-in Junction

관광지는 한글, 영문, 한자 순서로



도시고속도로 문형식 차선 유도 표지



고속국도 번호가 화살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한글과 영문 중간에 위치



도시고속도로 교차로 안내표지



한글 및 영문 표기
교차로 번호 기호는 한글 높이와 같게
아래의 표지판과 안내표지의 가로길이가 똑같아야 하므로
글자 크기 조절 가능 (아래 표지판과 글자크기 다름)



관광지 안내 표지



방향 표시를 아래에 놓고
 영문표기의 길이에 맞게 판의 크기도 변동
 픽토그램의 크기는 한글과 영문표기를 포함한 높이만큼 주어주고
 글자는 왼쪽 정렬
 예고거리의 글자크기는 한글과 동일
 화살표는 길이에 표지판 길이에 맞게



기타 이정표



가운데 정렬 후 영문 표기의 길이에 맞게 판의 크기 변동

올바른 영어표기 사용



과제 진행 후 느낀 점

평소에 도로표지판에 관심이 많았었고 과제 주제로도 잡게 되어서 진행하는 동안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매우 즐거웠다.

여러 논문과 실제 사례, 규정, 참고 사례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표지판이 날로 갈수록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 손대야 할 부분이 많았고 표지판 하나에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며 수치적으로 계산되어 진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흔히 그냥 보고 지나치는 표지판인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대상이어서 그런지 작업을 하면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여간 많은게 아니었다.

해외 사례도 조사하면서 선진국은 사람들이 흔히 넘어갈 수 있는 공공디자인까지 섬세하게 배려하고, 국민들도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 호응도가 높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공공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